

# 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큰 성과

### 고도화사업 성과평가 결과 매출액 기업당 전년 대비 2.4% 상승·고용 인원 14.7% 늘어

마지막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해오고 있는 전북도의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 지난해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도화사업 지원기업 매출액은 기업당 평균 3억3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2.4% 상승했고 고용 인원도 평균 8명으로 14.7% 늘어났다.

또한 이들 기업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성과만족도, 자금활용, 사업성과도 등에서도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내수 경기침체와 부정청탁금지법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된 점을 고려할 때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지원기업들이 이룬 성과는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크게 활성화 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향후 개선점으로는 각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되며 특히 정체기에 들어선 마을기업에 대한 대책과 제도완을 위한 지원 방안, 마을 단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마을기업 연합'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해 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책이 제기됐다.

전북도가 올해 추진할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은 2개 분야로 기계·장비 구축, 판로개척 및 마케팅 사업 등의 고도화일반사업에 대해 각 5,000만원 내외의 사업비를 10개소에 지원하고 마을기업제품의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새롭게 지원하는 품질개선사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20일 진흥 정무부지사는 전주 신중양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들고 전통시장 가자리는 주제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업에는 각 1,000만원 내외의 사업비를 10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다.

품질개선사업에는 시군과 마을기업, 연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함께 참여하게 된다.

전북도는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을 통해 사업성,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마을기업 간 또는 시군단위의 연계, 공동사업 유도로 마을기업의 성공모델을 발굴해 일자리를 얻고 창업으로

이해질 수 있도록 마을기업 아카데미, 마을기업 창업 설명회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은 다음달 24일까지 신청서를 시군에 접수 후 적격심사를 거쳐 도에 신청하면 된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현재 도내 100개의 마을기업이 지난해 950여명 일자리와 매출액 92억원, 전국 마을기업

경진대회 최우수 마을기업 6년 연속 배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인 전북 경제통상진흥원은 행정부 전국 평가에서 1위의 영예를 수상했다.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올해 18개소(신규9, 2차9)의 마을기업 지정과 5개소 예비마을기업 선정 및 고도화사업 추진 등을 통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 전북도, 설 명절 물가안정대책 추진

전북도는 설을 맞이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성수품 증점 관리 등 설 명절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올해 설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적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계란,채소 등 일부 품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도는 이달 30일까지를 설 명절 물가안정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안정에 집중할 계획이다.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기간 중 도와 시·군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설 명절 물가관리 추진체계를 구축해 지역별 성수품 동향 파악,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 활동 등을 실시한다. 또한 농수축산물, 개인서비스요금,

생필품 등 설명절 성수품 32개 품목을 증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 관리한다.

도와 각 시·군에 물가안정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전통시장, 마트 등을 방문해 성수품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담합에 의한 가격인상, 가격표시제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도·단속한다.

이와 함께, 지역 우수상품 직거래장터 및 특판행사 등 내고장 상품 애용하기 운동을 진행하고, 전통시장 장보기와 온누리상품권 이용 캠페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 쓸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 도, 설 맞이 군·경 부대·사회복지시설 방문 격려

전북도는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이해 20일과 24~25일 3일간 도내 15군 부대와 경찰 및 소방, 복지시설 등 12개소를 방문해 위로 격려했다.

지난 20일 방문하는 육군부사관학교와 7공수여단은 AI와 북한의 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토 수호에 헌신하며 경계근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설 명절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고 일선에서 향토방위와 치안유지에 애쓰는 군부대 장병들의 사기진작에

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양원 자치행정국장은 7공수여단을 방문하여 지역방위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발생 시 병력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발전전에 헌신해 준데 대해 감사의 뜻으로 위로금을 전달한다.

한편, 이와 별도로 도는 24~25일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도 도내 치안유지와 기동, 방범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도 경찰청 소속 5개부대와 교통119안전센터, 익산소방서 119구조대, 복지시설, 육군 제35사단 등 군부대를 방문해 훈훈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인재용 기자

# 도, 설명절 각종 감염병 예방 주의 당부

도 보건당국은 설명절을 맞이해 귀향이나 해외여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도민들에게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의를 당부했다.

설연휴기간 내 명절 음식 공동섭취를 통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조리하기 전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전국적인 조류인플루엔자(AI) 유행 시기인 것을 감안해 야생조류 접촉력이 있거나,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38℃이상 고열이

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관내 의료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의심환자에 대한 감시 및 신고토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 감염병 등의 국내 유입 가능성 대비 감염병 환자의 신속한 조치와 해외여행 후 감염자의 조기 발견 및 추적관리를 위한 감염병 관리 체계 강화하고 전북대학교병원 음압격리병실의 비상근무체계를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 도,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hot-line 운영

### 2월 10일까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전화(280-3255~6, 282-9898) · 인터넷 접수

지난 추석 징수군에 사는 양모(50)씨는 추석명절을 맞아 사고선물세트 12상자를 지인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런데 그 중 1상자가 미배송돼 택배사에 연락하자 수령인의 연락처가 기재돼 있지 않아 그냥 문앞에 놓고 갔다고 했다.

양모씨는 무책임한 배송에 대한 사과 및 분실된 사과 1상자 배송을 받고자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게 됐고, 이에 상담센터에서 00택배사측에 사실 확인 및 합의 권고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

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3만원 배상 처리했다.

전북도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부터 2월 10일까지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을 운영한다.

핫라인은 소비자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인터넷 (전화 280-3255~6, 282-9898, 인터넷 sobi.jeonbuk.go.kr, solijpch.or.kr)으로 접수·운영(3일내 처

리)하는 소비자 피해구제 창구이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연이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종 생필품부터 명절선물세트 등을 전자상거래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택배 서비스 또한 명절선물 수요 급증으로 배송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운송 중 파손·분실·배송지연 등 소비자 피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설명절 연휴는 대체휴일제 적용으로 긴 연휴기간을 이용한

해외여행객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행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도 소비자생활센터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피해센터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소비자 피해 품목 중 택배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쿠키서비스, 인터넷쇼핑몰 등의 피해에 대해 집중 상담 접수 처리하기로 했다.

그재목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겹쳐 장마구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선물세트 구입 시 가격비교를 꼼꼼히 한 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의 방법"이라며,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안전처 이성호 차관, 설 대비 전통시장 안전점검

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은 지난 20일 남부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안전관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방관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점검은 이선재 전북소방본부장을 비롯해 도민안전실과 기타 유관기관 등 10여명이 참여해 전주 남부

시장과 이를 관할하는 완산소방서를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전주완산소방서를 방문해 설맞이 종합대책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대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하고 연휴기간 중 특별경계근무에 임하는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인재용 기자

**희망2017나눔캠페인 기부자명단**

▲군산시 옥산면

- △신성길 27 200,000
- △우동마을 200,000
- △내류마을 100,000
- △봉서마을 100,000
- △대려마을 200,000
- △외당1마을 100,000
- △외당2마을 153,000

\*\*계 1,053,000원

정읍시 공고 제2017-94호

**정읍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지정계획(변경)(안) 열람공고**

정읍시 고시 제2013-87(2013.11.29.)호로 지정된 정읍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지정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명 칭 : 정읍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지정계획(변경)(안)
  - 위 치 : 정읍시 소성면 신천리 23번지 일원
  - 면 적 : 232,000㎡
  - 사업시행자 : 정읍시
2. 주민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2017년 01월 24일 ~ 2017년 02월 13일
  - 공람장소 : 정읍시청 첨단과학산업과, 소성면사무소
  - 내 용 : 배수시설 추가 변경
4. 기타사항
  - 이해관계인의 개별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의견 제출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첨단과학산업과(☎063-539-5672), 소성면사무소(☎063-539-72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 19. 정 읍 시 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